

광주 낙선자들 차기 총선행보 심상찮네

“2野 체제 속 언제든 기회 온다” 지역구 다지기 재시동 지역위원장 도전·지역 조직 역량 강화 등 쟁점들

4·13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일당 독점이었던 과거 총선과 달리 이번 총선에서는 두 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여 더민주 낙선자들이 느끼는 아쉬움은 크다.

‘녹색 돌풍’이 불면서 국민의당 완승으로 선거가 마무리됐지만, 역설적으로 이번 총선 결과가 후보 간 ‘능력’보다는 ‘바람’의 영향이 컸다는 점 때문에 낙선자들의 여론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더민주 광주지역 낙선자들은 “2野 체제에서 언제든 기회가 있다”면서 다음 선거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감을 갖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일부는 벌써 차기를 준비하며 재도전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더민주 낙선자 대부분은 우선 당 제제가 정비되면 출마했던 선거구의 지역위원장에 도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역위원장을 맡아 비박 민심을 다지면서 내년 대선과 그 다음해 지방선거에서

지역 조직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남을 선거구에서 박주선 의원과 ‘리턴매치’를 벌여 석패한 더민주 이병훈 낙선자는 이전 선거에서 낙선했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낙선인사를 아주 길게 할 것으로 주민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그는 “이번 총선을 통해 지역 민심이 정치권에 무엇을 바랐는지, 무엇을 원했는지를 파악했다”면서 “지역위원장을 맡아 당 생활에 집중하고, 내년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서구를 선거구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와 맞붙어 패한 더민주 양향자 낙선자는 선거가 끝난 뒤 지역구인 서구 금호동에 사무실을 열고 재도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양 후보는 “남은 인생 30년을 고향에서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지역 경제현안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당내 호남특위 활동은 물론 지역위원장을 맡아 지역 민심도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곧바로 당선됐으면, 좌충우돌했을까

모른다”면서 “지역 유권자들이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다. 이제 시작인 만큼 지역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송갑석 낙선자는 총선 이후 한달여 간 지역민들을 찾아 낙선 인사를 한 뒤 우선은 자신이 맡고 있는 (사)광주학교 운영에 전념하며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끝나고 낙선인사를 드렸는데, 주로 듣는 말이 ‘아깝다. 다음엔 될거다’였다”면서 “가능하면 지역위원장을 맡아 총선에서 얻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잘 관리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민들의 민심을 경청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갑에 출마한 정준호 낙선자도 차기 21대 총선 도전을 준비중이다. 그는 오는 6월부터 서울의 변호사 사무실 생활을 접고, 광주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계획이다. 그는 “현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에 올인하겠다”면서 “특히 중소기업 등 지역 협력업체를 돕는 일을 하면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총선에 출마했지만, 이제는 지역민들에게

준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당 독주체제였던 광주에서 본격적인 2野 체제가 돌입함에 따라 내년 대선부터 지방선거, 차기 총선까지 각종 선거 풍향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출마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어떤 선거든 ‘단기승부’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공천=당선’이란 등식도 점차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경선이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 중 더민주 강기정 의원은 독일 유학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위원장 등 지역에 상당한 ‘미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박학재 의원은 더민주 전당대회 개최 이전까지 맡은 시장위원장을 묵묵히 수행한 뒤 그동안 4년간 지지해준 지역 유권자들과 함께 주민으로 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임내현 의원은 중앙당 법률위원장을 맡는 등 중앙당 당직을 맡아 내년 정권교체에 큰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기자 cki@kwangju.co.kr】

새누리 비대위-혁신위 체제 위상 논란

비박 “비대위 권한 약화”...친박 “혁신위가 실권”

새누리당이 비상대책위와 혁신위의 두 기구를 통해 총선 참패 후 당 재건 및 쇄신을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두 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두 기구를 통한 총선 패배 수습안은 여권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박계는 총선에서 나타난 싸늘한 민심을 되돌리려면 개혁적 외부 인사를 앞세운 ‘강력한 비대위’가 당 체질을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만약 개혁 비대위를 운영하려면 전대 시기를 앞당기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재선 당선인 하태경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 ‘투 트랙’ 체제에 대해 “혁신을 밀어붙일 기구에 권한을 안 주고 격하시킨 것”이라며 “누가 봐도 새누리당이 반성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총일표 의원은 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나 새누리당을 사랑하는 분들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것”이라며 “참패의 원인을 찾고 앞으로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자세 변화가 나오길 원했는데, 아직 위기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비판과 반발이 확산하자 비대위 위원장에 내정된 정진석 원내대표가 직접 수습에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반성과 혁신을 통해 새누리당을 재창조하는 수준의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친박계 핵심 중진인 홍문종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 “혁신위가 제대로 가동된다면 아무 문제 없이 혁신위가 비대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정현 의원은 다소 다른 기류를 보였다. 이 의원은 전대 개최 시기에 대해 “할 수만 있다면 더 당겼으면 좋겠다”며 8월 초 정도를 적기로 보는 친박계 다수의 생각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의화 의장 ‘싱크탱크’ 26일 창립대회

원장에 박형준...외교·교육 등 5대 영역 정책연구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로운 정치판을 짜야 한다고 결정을 추진해온 싱크탱크 ‘새한국 비전’이 이달 말 모습을 드러낸다.

정의화 의장이 싱크탱크의 이사장을 맡으며,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원장으로 서 운영을 진두지휘한다.

박 사무총장은 12일 “기존 정당은 대통령을 배출해 정권을 만드는 데까지만 관심이 있고, 그 정권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관심 밖이라 구체적인 연구는 하지 않는 편”이라고 싱크탱크 발족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민국이 구조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지만 10년 뒤를 내다보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며 ▲외교·통일 ▲교육 ▲노동 ▲경제 ▲복지 등 5가지 영역에 필요한 장기적 정책을 연구할 것이라는

계 박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제20대 총선 결과 ‘협치’가 주요한 정치 화두로 떠오른 만큼 보수와 진보로 편을 가리지 않고, 양측이 사회·정치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 과제를 설정하는 게 싱크탱크의 설립 목적 중 하나다.

창립위원회로는 정 의장과 평소 가깝게 지낸 인사 100여명 모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 의장 측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동의절차를 밟고 있다. 여기에는 이수원 전 의장 비서실장, 조해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싱크탱크 창립대회는 26일 오후 4시 한정기념관에서 열린다. 본격적인 싱크탱크 활동은 정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시작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전방부대 방문...‘중도 행보’ 강화

지도부, 안보태세 점검 더민주 ‘우클릭’에 맞불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당선인 등 19명이 12일 경기도 연천의 전방부대 내의 태풍전망대를 방문했다.

국민의당의 이날 전방부대 방문은 야권의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연일 북한을 비판하며 ‘우클릭(보수·중도노선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이뤄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중도 진영 쟁탈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참석자들은 이날 군 헬기를 타고 전망대로 이동, 경계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일반전초(GOP) 활착선을 둘러보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해 8월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었던 곳이다. 당시 우리 군이 도발 원점으로 추정되는 곳에 155mm 자중포탄을 발사하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군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당은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이라며 “튼튼한 안보가 있어야 경제활동과 외교가 가능하고, 남북관계도 진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연천의 전방부대 28사단 태풍전망대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예비역 육군 병장’임을 강조한 박지원 원내대표도 “국민의당이 ‘진짜 안보’에 함께 하는 정당으로 국회에서도 군 무기체계 향상, 군 장병 복지 향상에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이 4·13 총선 이

후, 여야 3당 가운데 처음으로 전방부대를 찾은 등 안보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연일 북한에 ‘쏘소리’를 하는 등 중도노선의 외연 확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맞불’ 성격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여야를 떠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생산적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민간 여론조사도 안심번호 도입 공감대

여야가 민간 여론조사기관의 정치 여론조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하고 응답률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여야는 일단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여론조사기관도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온도차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2

일 “집전화로만 조사하면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안심번호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론조사연구소장을 지낸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론조사기관이 안심번호로 여러 번 조사를 하면 그 안심번호의 습성을 알 수 있다”며 “중요한 때에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상시로 제공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특구내 빌딩 매매

지하 1층 ~ 지상 7층 (중심 상업지역)

대지: 661㎡ (200평) 건축: 495㎡ (150평)
연면적: 3,446㎡ (1042평)

최상의 인센티브!

법인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감면

- 문화 콘텐츠 연계 사업시 최적
-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취득세 면제, 재산세 15년 범위내 감면
- 다양한 보조금 지원 및 대폭적인 세제감면 금융지원

010-8696-8949
미래나눔공인중개사

아이엘리시아

수비드(sous-vide) 떡갈비, 삼겹살 & 돈까스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중·고)	미취학어린이
平日 12,500원	8,500원	5,000원
토·일·휴일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